

Morning Brief

2021. 12. 06

* 본 자료는 금일 공표된 리포트의 통합본입니다.

Today's Comment

[산업]

철강/비철(비중확대) : 중국 철강 제품 가격 하락은 일단락되었다고 판단-----김미송

건설(비중확대) : 원자력 발전, 에너지 게임 체인저될까? -----김미송

[전략]

국내외 경제이슈 : 미 3대 증시, 오미크론 변이 우려 및 고용지표 부진에 동반 하락-----채현기

CAPE Weekly : 공포에 두려워할 시점이 아니다 -----투자전략팀

주요국 증시				환율 · 금리 · 상품			
	증가	전일비	%		증가	전일비	%
미국지수				환율			
DOW	34,580.08	-59.71	-0.17	원/달러	1,179.98	4.36	0.37
NASDAQ	15,085.47	-295.85	-1.92	엔/달러	112.80	-0.31	-0.27
S&P 500	4,538.43	-38.67	-0.84	원/엔	10.48	0.08	0.78
Phil 반도체	3,804.54	-6.28	-0.16	원/유로	1,332.03	0.17	0.01
유럽지수				금리			
영국 (FTSE)	7,122.32	-6.89	-0.10	CD(91일)	1.27	0.01	0.79
프랑스 (CAC)	6,765.52	-30.23	-0.44	국고채 3년	1.90	0.05	2.54
독일 (DAX)	15,169.98	-93.13	-0.61	미국채 2년	0.59	-0.03	-4.13
아시아지수				미국채 10년			
한국 (KOSPI)	2,968.33	23.06	0.78	1.34	-0.10	-7.01	
한국 (KOSDAQ)	998.47	21.04	2.15	상품			
일본 (NIKKEI)	28,029.57	276.20	1.00	금(NYMEX)	1,782.00	21.30	1.21
대만 (가권)	17,697.14	-27.74	-0.16	구리(LME)	9,418.00	-78.00	-0.82
홍콩 (항셍)	23,766.69	-22.24	-0.09	철강(중국내수)	4,779.00	19.00	0.40
중국 (상해종합)	3,607.43	33.60	0.94	BDI	3,171.00	56.00	1.80
인도 (SENSEX)	57,696.46	-764.83	-1.31				

※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철강/비철 Weekly] 중국 철강 제품 가격 하락은 일단락되었다고 판단

Analyst 김미송 6923-7336, misongkim@capefn.com
 RA 이규익 6923-7359, kyuiikk@capefn.com



총평

- ▶ 지난주 중국 철강제품 가격 열연 -0%WoW, 냉연 -0.4%, 후판 -0.2%, 철근 -0.4%. 제품 가격 소폭 하락.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로 철강 제품 가격은 주 초반 1% 가까이 하락했으나 중국의 양호한 제조업 PMI 지표 발표와 더불어 철강 재고 감소세 지속되면서 하락폭 일부 반납.
- ▶ 철광석 105달러 +2.5%, 선물 101달러 +6.4%. 재고가 2018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 발레가 21년과 22년 철광석 생산량 전망을 하향 조정한 영향. 발레는 21년 철광석 생산 전망을 3억 1,500만톤~3억 3,500만톤에서 3억 1,500만톤~3억 2,000만톤으로 22년 철광석 생산 전망도 기대치 3억 4,600만톤에 못미치는 3억 2,000만톤~3억 3,500만톤으로 하향 조정.
- ▶ 원료탄 285달러 -2.1%. 가격 하락. 중국 원료탄 재고 증가세 지속.
- ▶ 주요 뉴스, 12/3일 저녁, 헝가리 홍콩거래소에 2.6억달러의 채무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공시함. 이에 금융당국은 헝가리 사태를 개별사건으로 규정하고 경제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개별 이슈로 인한 디벨로퍼 역외 달러채 발행시장 불안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 중국 11월 제조업 PMI 지수는 0.9pt 상승하며 50.1을 기록. 중국 정부의 에너지 공급 안정화와 공급망 차질 완화에 기인. 중국 철강업 PMI 지수는 1.7pt 하락하며 36.6을 기록. 동절기 감소 규제가 행해진 영향.
- ▶ 국내외 제품 가격 변동 내역. 현대제철 12월 철근 가격 1만원 인상, H형강 가격 2만원 인하. 한편 사강강철은 12월 상승 철근 가격 동결.
- ▶ 금속 가격 아연 3,240달러 -2.5%, 연 2,231달러 -2.8%, 구리 9,513달러 -1.2%, 니켈 20,290달러 +0.3%, 코발트 66,746달러 +6.2%. 금 1,783달러/oz -1.1%, 은 23달러/oz -2.7%. 금속별로 가격 흐름이 달랐음. 구리 가격은 오미크론의 확산 등의 영향으로 하락. Las Bambas광산에서의 생산 중단 이슈가 있었으나 가격의 하락을 막진 못함. 코발트 가격은 콩고에서 중국인이 공격을 당하며 광산 운영 차질 이슈가 부각되어 상승.
- ▶ 중국 철강 제품 가격 하락은 일단락 되었다고 판단. 철광석이 이미 큰폭 조정을 보였고, 석탄 가격은 겨울철에 강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 낮음. 중국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수요는 둔화되지만, 22년 1/1~3/15일까지 철강 생산량이 21년 대비 30% 줄어들면서 수급이 타이트해 진다는 점을 반영할 것. 중국 철강 유통 재고가 낮다는 점도 가격을 지지할 전망.

철강 가격 업데이트

단위(가격, %WoW)

- ▶ 열 연: 중국내수: 4,779 위안/톤(0%), 중국수출외파: 799 달러/톤(0%), 한국내수: 1,220 천원/톤(0%), 한국수입: 1,120 천원/톤(+0.9%)
- ▶ 냉 연: 중국내수: 5,453 위안/톤(-0.4%), 중국수출외파: 913 달러/톤(-1.8%), 한국내수: 1,260 천원/톤(-0.8%), 한국수입: 1,250 천원/톤(-0.8%)
- ▶ 후 판: 중국내수: 5,086 위안/톤(-0.2%), 중국수출외파: 838 달러/톤(-0.1%), 한국내수: 1,070 천원/톤(0%), 한국수입: 1,070 천원/톤(0%)
- ▶ 철 근: 중국내수: 4,781 위안/톤(-0.4%), 중국수출외파: 836 달러/톤(-1.4%), 한국내수: 1,045 천원/톤(+0.5%), 한국수입: 980 천원/톤(0%)
- ▶ H형강: 한국내수: 1,260 천원/톤(-0.8%), 한국수입: 1,200 천원/톤(0%) ▶ ST열연: 한국내수: 4,000 천원/톤(0%), 수입: 3,950 천원/톤(0%)
- ▶ 철광석: 호주Spot: 105 달러/톤(+2.5%), SGX선물: 101 달러/톤(+6.4%) ▶ 강점탄: 호주Spot: 285 달러/톤(-2.1%)
- ▶ 재 고: 열연: 255 만톤(-0.5%), 냉연: 166 만톤(+0.5%), 철근: 441 만톤(-3.7%), 철광석: 13,600 만톤(0%)

비철금속 가격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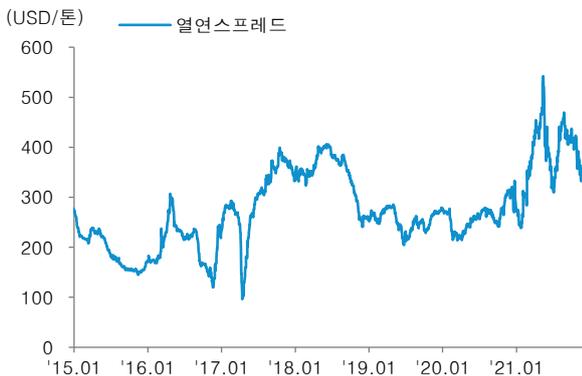
단위(가격, %WoW)

- ▶ 아연: LME가격: 3,240 달러/톤(-2.5%), 재고: 153 천톤(-6.1%) ▶ 연: LME가격: 2,231 달러/톤(-2.8%), 재고: 56 천톤(-2.5%)
- ▶ 구리: LME가격: 9,513 달러/톤(-1.2%), 재고: 78 천톤(-6.5%) ▶ 니켈: LME가격: 20,290 달러/톤(+0.3%), 재고: 113 천톤(-2.5%)
- ▶ 코발트: LME가격: 66,746 달러/톤(+6.2%), 재고: 271 톤(0%)
- ▶ 금: LME가격: 1,783 USD/oz(-1.1%) ▶ 은: LME가격: 23 USD/oz(-2.7%)
- ▶ 환율: 원/달러: 1,180 (-1.1%), 위안/달러: 6.38 (-0.3%), 헤알/달러: 5.65 (+0.9%)

주요 뉴스

- WEEKLY: China iron ore port stocks rise to 155 million t (Mysteel 12/3)
- WEEKLY: China BF capacity use dips 7th week to 74.8% (Mysteel 12/3)
- Chinese mills' steel stocks slip 9% WoW (Mysteel 12/3)
- WEEKLY: China coke plants' coke stocks down 16% (Mysteel 12/3)
- MYSTEEL: China's late Nov daily steel output dips more (Mysteel 12/1)
- MYSTEEL: China Dec steel prices face greatest complexity (Mysteel 11/30)

열연 스프레드(=열연가격-1.6*철광석-0.7*원료탄-0.064*철스크랩)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중국 열연, 냉연, 철근 내수 가격 및 포스코 주가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철강 뉴스

21년 12월 03일	WEEKLY: China iron ore port stocks rise to 155 million t
(출처: Mysteel)	-중국 45개 항구 철광석 재고는 전주보다 1.3% 증가한 1억 5,460만톤을 기록하며 2018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 10주 연속 오름세를 보임. -철광석 출하량은 전주보다 1.9% 줄어든 데 반해 더 많은 철광석이 항구에 도착했기 때문. 철광석을 하역하기 위해 항구에 대기 중인 선박의 수는 전주보다 6척 줄어든 152척임.
21년 12월 03일	WEEKLY: China BF capacity use dips 7th week to 74.8%
(출처: Mysteel)	-중국 24개 제철소 고로 활용도는 전주보다 0.43% 하락한 74.8%를 기록하며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감. 이는 2018년 3월 이후 최저치임. 산동성의 철강사들이 2021년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의 조강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감산했기 때문. -다만 가동률은 전주보다 0.14% 상승한 69.8%를 기록. 북부 지방의 몇몇 고로들이 보수를 마치고 가동을 재개했기 때문.
21년 12월 03일	Chinese mills' steel stocks slip 9% WoW
(출처: Mysteel)	-중국 184개 제철소 5대 철강재 재고는 전주보다 8.7% 감소. 지지난주보다 더 빠른 감소세를 보임. 수요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몇몇 제철소들이 동절기 정기 보수에 들어가며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 5대 철강재 생산량은 전주보다 0.7% 감소함. -12월 말이나 1월 초 정기 보수들이 끝나며 생산량이 일부 증가할 수 있음. 지속적인 재고 감소가 철강 가격의 하방을 지지하고 있음.
21년 12월 03일	중국 전극용 2년 반만에 최고가
(출처: 스틸데일리)	-전기로 건설이 늘어나면서 전극 수요가 증가해 중국산 전극용 가격이 2년 반만에 최고치를 기록. 스크랩 가격 하락으로 이익이 늘어나 증산 의욕이 높아지면서 11월 중순 전기로 제강사 가동률은 53.7%를 기록. 전주보다 2.38% 높아진 수치임. -또한 베이징 올림픽으로 전극 감산이 있을 예정이어서 재고를 확보하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21년 12월 03일	WEEKLY: China coke plants' coke stocks down 16%
(출처: Mysteel)	-코크스 공장의 코크스 재고는 전주보다 15.8% 감소하며 2주째 감소세를 이어감. 10월 초부터 이어진 코크스 생산의 감소세가 끝나고 생산은 소폭 증가했지만 코크스 가격의 하락세가 주춤하자 트레이더들이 많은 양의 코크스를 구매했기 때문. -다만 제철소들은 코크스 구매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 한편 11월에만 제철소들이 코크스 공장에 요구한 코크스 가격 인하폭은 1,600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21년 12월 02일	철근 제강사 재고, 바닥서 낮은 포복 유지
(출처: 스틸데일리)	-7대 철근 제강사 보유재고가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 상반기 수급 대란으로 무리해서 미뤄온 제강사의 대보수 일정이 동절기에 나타나고 있으며 시장 수요도 눈에 띄게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음. -수입산 철근 재고도 여전히 많은 상황이어서 수급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 않음.
21년 12월 02일	China retail steel stocks fall again, down 4% Wow
(출처: Mysteel)	-중국의 5대 철강재 유통 재고는 전주보다 3.9% 추가 감소하며 10개월 내 최저치를 경신함. 특히 철근의 재고 감소폭이 가장 컸음. 낮은 철강 생산과 더불어 트레이더들이 높은 수준의 재고 비축을 꺼려한 영향. -선재 재고 역시 큰 폭의 감소를 보이며 철근과 선재 모두 10.5개월 내 최저치의 재고를 기록함.
21년 12월 01일	MYSTEEL: China's late Nov daily steel output dips more
(출처: Mysteel)	-중국의 11월 하순 조강 생산량은 중순보다 1.5% 더 감소하며 20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함. 중국 북부 지방에 내려진 감산 규제의 영향. 월로 보면 11월 조강생산량은 10월 보다 6% 감소하며 월 기준으로도 20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함. -추워진 날씨에 11월 하순 건축용 철강재 거래량은 11월 중순보다 4.1% 감소함.
21년 12월 01일	Pandemic to slow Mongolian coal delivery to China again
(출처: Mysteel)	-중국 내몽골주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며 일평균 통행 트럭수는 200대까지 감소함. 지난주 중국과 몽골이 일평균 통행 트럭수를 700대까지 늘리자는 합의를 한 바 있으며 지난주에는 일평균 통행 트럭 수는 500대 수준이었음. 11월 30일 중국 코로나 확진자 수는 113명이었는데 그 중 91명이 내몽골주에서 나왔음. -몽골이 올해 중국의 최대 원료탄 수입국이지만 코로나로 잦은 방해를 받으며 전년 동기 대비 63% 낮은 양이 수입되고 있음.
21년 11월 30일	MYSTEEL: China Dec steel prices face greatest complexity
(출처: Mysteel)	-12월 철강 시장은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혼재되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마이스틸의 왕진화 애널리스트가 언급함. 우선 수요 측면에선 중국의 자산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와 겨울철 추운 날씨로 인한 수요 감소가 뒤섞일 것이라고 언급. 다만 유통 재고가 감소세에 있다는 점은 철강 가격을 지지할 것. -공급 측면에서도 2020년 조강 생산량 이하로 감산을 한 제철소들은 생산량을 늘리겠지만 아닌 제철소들은 감산을 지속할 것. 그래도 몇몇 제철소들이 정기 보수를 마치고 가동을 재개하며 생산량 소폭 증가할 것.
21년 11월 30일	NBS: China Nov manufacturing PMI back to expansion zone
(출처: Mysteel)	-중국 11월 제조업 PMI지수는 4월부터의 하락세를 마감하고 0.9pt 상승하며 50.1을 기록. 9,10월 수축 국면에 머물러 있었으나 다시 확장 국면으로 돌아옴. 중국 정부의 에너지 공급 안정화와 공급 부족 완화 그리고 원재료 가격의 안정화의 영향. -생산, 신규 주문, 수출, 수입 지수 모두 상승했으며 원재료 조달 가격 지수는 급락함.

비철 뉴스

21년 12월 03일	MMG to shut down operations at Las Bambas copper mine by mid-December
(출처: mining.com)	-페루에서 4번째, 세계에서 9번째로 큰 구리 광산인 Las Bambas가 지속적인 원주민들의 도로 봉쇄로 자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12월 중순까지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힘. 원주민들은 광산 연간 이익의 8%를 지역 주민들에게 쓰길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요구가 과도하다는 판단에 협상이 진척되고 있지 않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철도 연결이 제시되고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너무 드는 것으로 알려짐. 한편 해당 사건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음.
21년 12월 02일	Chinese embassy calls upon citizens to leave three provinces in the DRC
(출처: mining.com)	-지난주 있었던 현지 무장단체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에 중국 대사관은 Ituri 동부, Kivu의 북부, 남부 지역의 중국인들에게 해당 지역을 떠나고 다시 위치를 보고하라고 전파함. -지난주 광산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으로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납치 당했음. 이에 중국 대사관은 피신 작전에 돌입했고 광산 채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산업재 / 건설

비중확대

Analyst 김미송
02-6923-7336
misongkim@capefn.com

RA 이규익
02-6923-7359
kyuikk@capefn.com

원자력 발전, 에너지 게임 체인저일까?

각국의 탈 탄소화 정책 강화

-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국가수 증가. 각국이 현재까지 내놓은 정책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미흡. 목표선언한 정책이 완전히 이행된다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현재 대비 39% 줄어 듦.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강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
- 에너지원별로 태양광, 풍력, 천연가스(CCUS), 원자력, 바이오에너지 순서로 공급을 늘려야 함.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같은 수요국은 에너지 투자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

주요국 동향: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 속도 빨라질 것

-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을 다방면으로 제시. 탄소무배출 전력으로 전환. 최종사용부문 전기 효율화, 에너지 낭비 억제, 기타 온실가스 저감 등임. 원자력 발전 지원을 강화해 수소생산 시범사업도 진행 중.
- 중국도 석탄 의존도를 큰 폭 낮출 필요가 있어 고른 부문으로 에너지 전환할 전망.
- 영국은 대형원전 뿐만아니라 소형모듈원자로 등 개발에 투자 중.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부양 강화 기조로 최근 전환함. 러시아는 원자력 발전에서 강자로 2020년대 들어 원자력을 더욱 장려. 일본에서도 원자력 발전 비중 높아질 것.

에너지 전환 방향성 전망: 원자력 발전 증가 예상

- 발전량 상위국의 에너지 전환이 글로벌 방향성을 주도할 것. 상위 10개국의 발전량이 글로벌의 70%를 차지하기 때문. 분석 결과, 석탄을 대폭 줄이고, 원자력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원자력을 반대하는 독일은 원전건설에 오랜 기간이 필요해 기후변화 대응책이 될 수 없고,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원전 가동이 위험하다고 주장.
- 대형원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할 필요. SMR은 공사기간이 36개월로 짧고, 안전성이 개선됨. 일체형으로 단순화에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낮음. SMR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2030년전까지 상용화 될 것.

추천 종목

- 국내 건설사의 대형원전 뿐만 아니라 소형 모듈원자로 등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아짐. 원자력 시공 능력을 보유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을 추천. 현대건설은 미국 홀텍사와 SMR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 대우건설은 체코와 폴란드에서 프로젝트 입찰 준비 중

주요 기업 투자의견

(단위: 원, %, 배, 십억원)	투자의견	목표주가	현재주가	상승여력	2021E				
					EPS	PER	PBR	ROE	순차입금
현대건설	BUY	72,000	48,300	49%	3,670	13.2	0.8	6.8	-3,338
대우건설	BUY	9,000	5,880	53%	1,204	4.9	0.7	17.1	1,232

자료: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국내외 경제이슈

Economist 채현기

02-6923-7348

hkchae@capefn.com

연구원 황준호

02-6923-7357

junhohwang94

@capefn.com



미 3대 증시, 오미크론 변이 우려 및 고용지표 부진에 동반 하락

<p>미국</p>	<p>옐런 재무장관, 인플레이션을 일시적 현상으로 간주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이로 인해 공급망 붕괴와 인플레이션이 보다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고 언급. 다만,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이 저하된다면 물가 상승세가 둔화될 수도 있다고 설명 <p>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미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고 싶을 것이라고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활동이 견조한 가운데, 2021년 미국 인플레이션은 매우 빠르게 상승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부양책 철회(테이퍼링) 속도를 더 빠르게 할 것을 고려하게 만든다고 설명 - 실질 GDP는 이미 팬데믹 이전 최고치를 상회하고 있고, 노동시장도 회복되고 있어 완화적 통화정책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 다만 오미크론 변이와 같은 팬데믹 관련 위험은 상존한다고 언급 <p>11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예상치(55만명)를 하회하며 전월대비 증가폭 축소(54.8만명→21만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실업률은 예상치(4.5%)를 하회하며 전월대비 하락(4.6%→4.2%). 11월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예상치(61.7%)를 상회하며 전월대비 상승(61.6%→61.8%). 시간당 평균 임금은 예상치(0.4%)를 하회하며 전월대비 상승폭 축소(0.4%→0.3%, mom) - 세부 항목상으로는 전문직 및 비즈니스(9만명), 운송 및 창고업(4.97만명), 레저 및 접객(2.3만명) 등 업종에서 전월대비 증가. 반면 소매업(-2.04만명), 정보(-0.2만명) 등에서 전월대비 감소 <p>11월 ISM 비제조업 지수, 예상치(65)를 상회하며 전월대비 상승(66.7→69.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ISM에 따르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가운데 구인난, 원자재 부족 등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이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 <p>11월 Markit 서비스업 PMI, 예상치(57)를 상회했으나 전월대비 하락(58.7→5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HS 마킷에 따르면, 11월 미국 기업 활동이 견조하게 성장하면서 4분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단기 성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
<p>중국</p>	<p>11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예상치(53)를 하회하며 전월대비 하락(53.8→5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이신에 따르면, 공급과 수요가 느린 속도로 회복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공급보다는 수요에 더 큰 타격을 가하면서 서비스업 지표가 부진했다고 설명
<p>주간 환율</p>	<p>달러 인덱스(DXY)는 전주대비 0.03pt(0.03%) 상승한 96.12pt 를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월 연준 의장을 포함한 FOMC 구성원들의 매파적 발언들에 힘입어 테이퍼링 가속화가 기대된 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 다만 미국 고용 지표 부진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가 상승폭을 제한 <p>원/달러 환율은 전주대비 13.2 원(1.11%) 하락한 1,180.1 원에 마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감염 소식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대량 매매수세에 힘입어 전주대비 하락 마감
<p>주간 원자재</p>	<p>금 가격(1 월물)은 전주대비 0.18% 하락한 온스당 1,782 달러로 마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 위원들의 연이은 매파적 발언과 테이퍼링 가속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주대비 하락 마감 <p>WTI 유 가격(1 월물)은 전주대비 2.77% 하락한 배럴당 66.26 달러로 마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부각되면서 전주대비 하락 마감. 다만 OPEC+가 증산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견조한 수요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해석으로 낙폭은 제한

Appendix

글로벌 증시와 원자재						
종목	현재	1D(%)	1W(%)	1M(%)	1Y(%)	5Y(%)
코스피	2,968.33 (pt)	0.78	2.03	-0.03	8.67	49.17
코스닥	998.47 (pt)	2.15	0.62	-0.29	9.27	71.75
다우존스	34,580.08 (pt)	-0.17	-1.58	-4.81	14.43	79.62
SSP500	4,538.43 (pt)	-0.84	-2.51	-3.39	22.69	105.15
나스닥	15,085.47 (pt)	-1.92	-4.42	-5.55	21.03	182.87
유로스톡스 50	4,080.15 (pt)	-0.68	-0.71	-6.48	15.28	31.59
상해종합	3,607.43 (pt)	0.94	1.26	3.32	4.73	12.74
니케이 225	28,029.57 (pt)	1.00	-0.90	-5.34	4.78	52.66
MSCI AC World	724.18 (pt)	-0.81	-1.90	-4.35	14.39	73.77
CRB 원자재	566.30 (pt)	0.26	-0.24	-0.25	32.54	33.79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달러인덱스와 원/달러 환율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국제 원유 가격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금리 및 환율						
종목	현재	1D(bp/%)	1W(bp/%)	1M(bp/%)	1Y(bp/%)	5Y(bp/%)
국고채 3년	1.90 (%)	4.7	5.0	-6.3	92.7	16.0
국고채 10년	2.24 (%)	2.8	-3.5	-11.5	57.1	3.5
미 국채 2년	0.59 (%)	-2.5	10.3	18.7	43.7	-52.7
미 국채 10년	1.34 (%)	-10.1	-15.6	-10.8	37.7	-104.6
중국 시보(7월)	2.09 (%)	-2.0	-16.0	-6.0	-4.0	-41.0
달러 인덱스	96.12 (pt)	-0.04	-0.23	1.91	5.97	-4.35
원/달러	1,180.10 (원)	0.36	-1.08	-0.43	9.06	0.74
달러/유로	1.13 (달러)	0.04	0.13	-2.26	-6.72	5.49
엔/달러	112.85 (엔)	-0.23	-0.60	-0.49	8.33	-1.03
위안/달러	6.38 (위안)	-0.01	-0.18	-0.35	-2.37	-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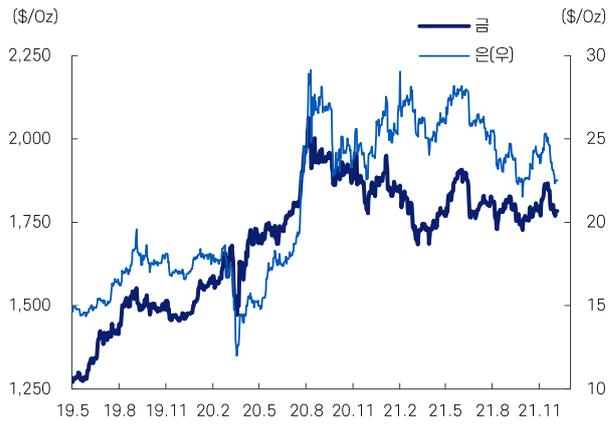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금과 은 가격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CAPE Macro Weekly (11.29~12.03)



Economist 채현기 | 02-6923-7348 | hkchae@capefn.com

시황/ETF 나정환 CFA | 02-6923-7349 | jeongna@capefn.com

RA 황준호 | 02-6923-7357 | junhohwang94@capefn.com

RA 정태현 | 02-6923-7356 | jth1004@capefn.com

공포에 두려워할 시점이 아니다

국내증시 Preview (12.06 ~ 12.10)

KOSPI 주간 레인지: 2,890pt~3,050pt

이슈 및 전망

- **미 증시 급락과 공포.** 지난주 금요일에 미 증시가 급락세를 보였고, 주말동안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부정적인 상황임. 하락의 계기는 11월 고용지표였지만, 공포의 근원은 미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라고 판단함. 미국 11월 고용지표는 컨센서스를 하회한 비농업 취업자수(21만건)를 제외하면 실업률(4.2%)도 낮아지고, 경제활동 참가율(61.8%)도 오르는 등 양호하게 집계되었음. 그러나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발언한 상황에서 11월 고용지표가 미 연준이 긴축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집계되었고, 미 연준의 긴축기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미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음.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12월 16일 FOMC에서 현행 테이퍼링 가속화가 논의될 가능성은 충분하고, 내년 테이퍼링 종료 이후 기준금리를 인상될 가능성도 있음. 특히, 블라드 총재('22년 투표권 보유)는 내년 1분기 안에 테이퍼링을 종료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연준의 긴축 정책 가능성 확대가 지난주 금요일 이후 위험자산 회피현상을 촉발함. 미국 유동성 지표인 M2 YoY 증가율은 13% 수준으로 여전히 과거 2013년~2014년 테이퍼링 진행 시의 5~6%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테이퍼링은 '유동성 축소'가 아니라 '유동성 공급 규모의 축소'라는 점과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야 함. 미 연준의 긴축 정책이 실제로 논의되기도 전에 금리 인상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한 미 증시 하락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위험자산 회피 심리 강화로 이번주 국내 증시에 하방압력을 가할 수 있으나, 낙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함. KOSPI 2,900pt선 이하에서는 저가매수로 대응하는 것은 유효함.
- **오미크론 변이는 봉쇄정책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음.**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전세계 국가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나, 아직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견된 사례는 없음. 오미크론 변이 확산추이를 보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공장 셧다운 등 봉쇄 정책이 펼쳐질 지의 여부를 확인 해야함. 특히, 이번 오미크론 변이는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극심한 증상을 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남아시아에서 확산이 되어도 공장 셧다운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오미크론 변이가 아시아 국가에 부품 부족 등 공급망 쇼크를 장기화하지 않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음.
- **투자전략.** 미 연준의 긴축 우려,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세, 중국 '헝타' 디플트 위기 등 부정적인 뉴스 플로우로 인해 현재 투자 심리는 악화된 상황임. 12월 KOSPI 지수의 상승폭을 높게 보진 않지만, 낮게 보는 것도 아님. KOSPI 지수 2,900pt 이하에서는 기존 2022년 전망에서 추천한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유효한 대응 전략이라 판단함.

미국 M2 증가율 및 기준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오미크론 변이 확진 발생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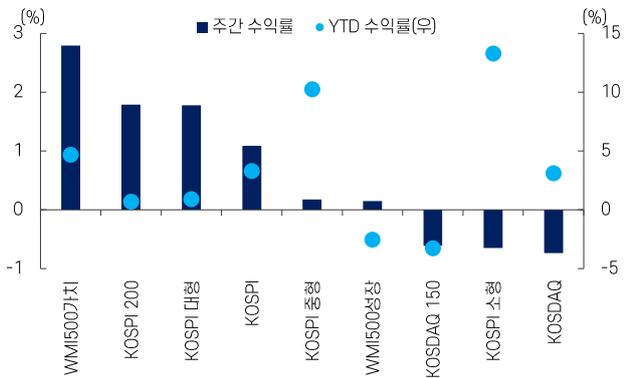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Google image,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국내증시 Review (11.29 ~ 1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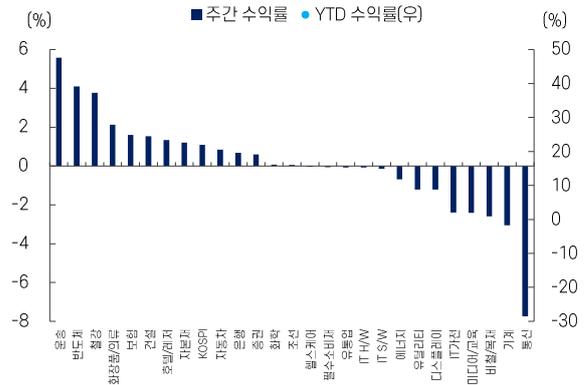
한국 증시

- KOSPI는 전주대비 +1.09% 상승한 2,968.33pt를 기록함. KOSDAQ은 전주대비 -0.74% 하락한 998.47pt를 기록함. 이번주 KOSPI는 전주대비 상승 마감함.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강화 및 연준 위원들의 연 이은 매파적 발언에 테이퍼링 가속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전주대비 상승 마감함.
- 이번주 KOSPI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조 2,241억원, 549억원 순매도, 외국인이 1조 8,854억원 순매수를 기록함. KOSPI는 업종별로는 운송(+5.6%), 반도체(+4.1%), 철강(+3.8%) 등 업종에서 강세. 반면 통신(-7.7%), 기계(-3.0%), 비철/목재(-2.6%) 등 업종에서 약세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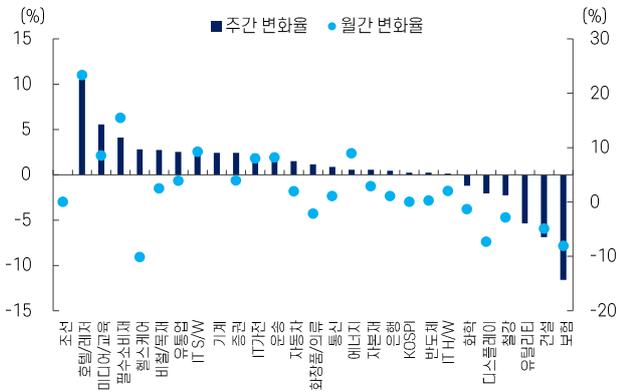
한국 증시 스타일별 주간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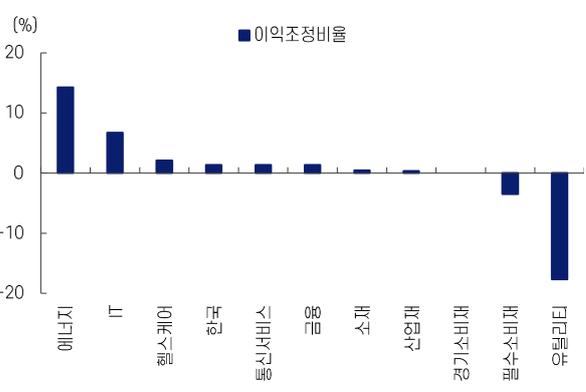
KOSPI 업종별 주간수익률



KOSPI 업종별 12M Fwd 영업이익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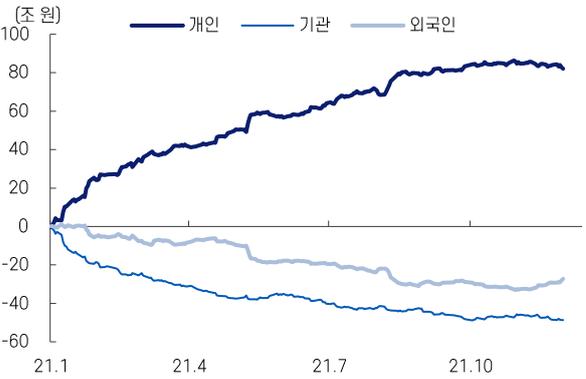
한국 주간 업종별 이익 조정비율



KOSPI 12M Fwd PER, EPS 추이



국내 증시 투자자별 수급 추이



자료: Quantwise,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자료: Quantwise,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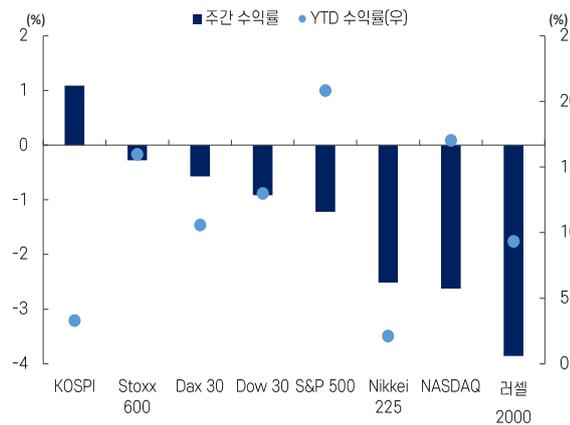
선진국 증시 Review & Preview (11.29 ~ 12.10)

차주 증시는 높은 변동성 속 기술적 반등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됨.

증시 리뷰 및 이슈: 미국 S&P500지수는 전주 대비 -1.22% 하락한 4,538.43pt를 기록함. 다우존스30지수는 전주 대비 -0.91% 하락한 34,580.08pt를 기록함. 나스닥 지수는 전주 대비 -2.62% 하락한 15,085.47pt를 기록함. 금주 미 증시는 일부 국가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파월 연준 의장이 조기 테이퍼링을 시사하는 매파적 발언을 함에 따라 하락함. 하락 이후 저가매수세 유입되며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으나, 금요일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 대비 큰 폭 하회하면서 또 한번의 증시 충격이 발생함. 한편, 가상화폐에서 급락세가 이어졌는데 이는 나스닥 하락폭을 더욱 확대하기도 함. 반면, 다우지수의 경우 대형 경기방어주 및 가치주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면서 제한적으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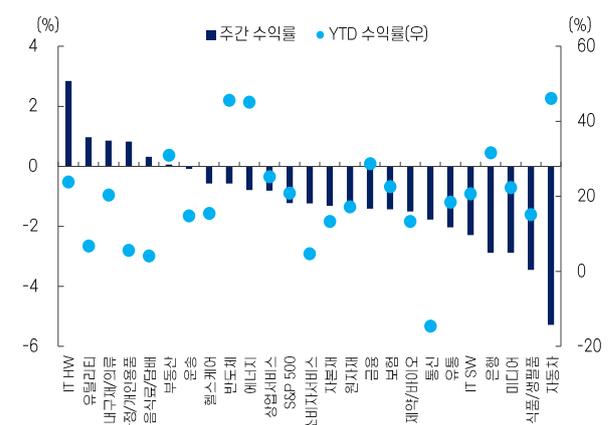
- **업종:** 금주에는 IT HW(+2.8%), 유틸리티(+1.0%), 내구재/의류(+0.9%) 등이 상승하고, 자동차(-5.3%), 식품/생필품(-3.5%) 등이 하락함.
- **전망:**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중증이 아닌 대체로 경미한 증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불확실성은 일부 축소된 것으로 판단됨. 한편, 11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부진했는데,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는 비농업 고용의 헤드라인 지표가 부진했지만, 세부항목을 볼 때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림. 오미크론 확산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11월 고용지표를 보고도 연준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결국 증시 하락은 조기 긴축에 대한 반응인 것으로 판단됨.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첫 금리 인상 시기를 기준으로 3~6개월 전에 증시 조정이 항상 나타났는데, 현재 금리 인상 컨센서스는 22년 하반기 이후이고, 조기 긴축을 하더라도 22년 여름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기 긴축 조정을 우려하기에는 시기적으로만 봤을 때 약간의 여유가 있다는 판단임.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며 차주 증시는 높은 변동성 속 기술적 반등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됨.

선진국 증시 주간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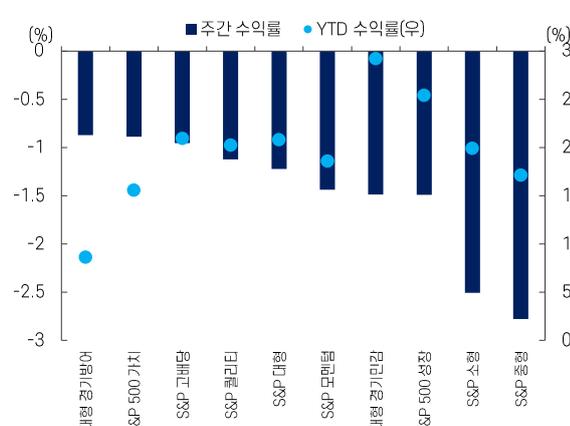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S&P 500 업종별 주간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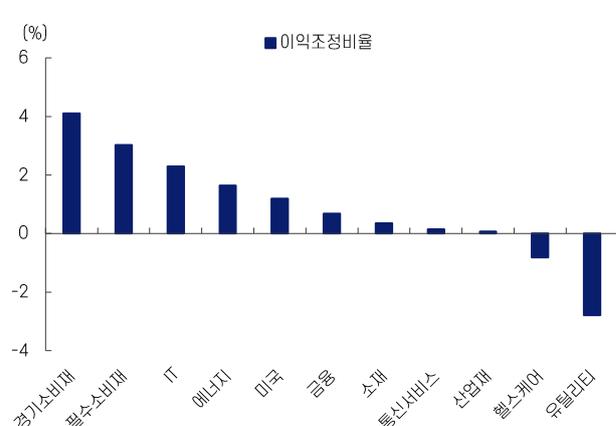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S&P 500 스타일별 주간수익률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미국 주간 업종별 이익 조정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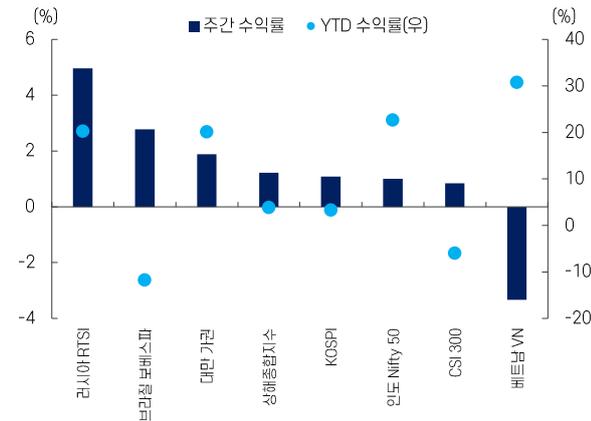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신흥국 증시 Review & Preview (11.29~ 12.10)

차주 신흥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투자 심리 약화로 인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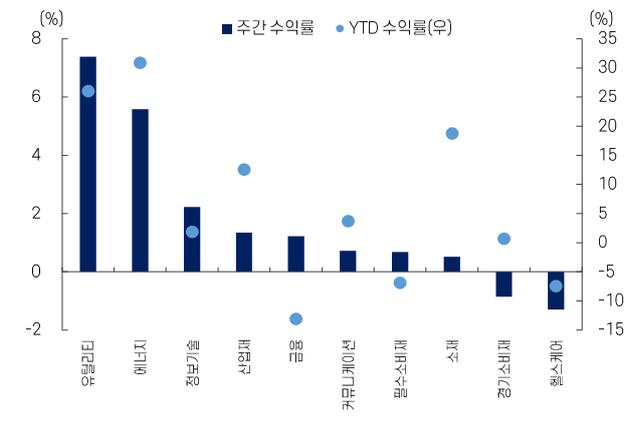
- **증시 리뷰 및 이슈:** 상해종합지수는 전주대비 +1.22% 상승한 3,607.432pt를 기록함. 홍콩 항셱 지수는 전주대비 -1.30% 하락한 23,766.69pt를 기록함. Nikkei 225 지수는 전주대비 -2.51% 하락한 28,029.57pt를 기록함. 이번주 중국 증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변이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인식과 11월 제조업 PMI 지표가 호조를 보인 것에 힘입어 전주대비 상승 마감함. 또한 중국 정부 자문역들이 2022년 실질 GDP 성장을 목표치를 5.0~5.5%로 설정했다는 소식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된 점이 이러한 상승세를 지지함. 반면 11월 서비스업황 지표가 부진한 것과 중국 정부 당국이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홍콩 항셱 지수는 전주대비 하락 마감함.
- **업종 및 특징주:** 금주에는 유틸리티(+7.4%), 에너지(+5.6%), 정보기술(+2.2%) 등 업종에서 전주대비 상승 마감함. 반면 헬스케어(-1.3%), 경기소비재(-0.9%) 업종에서 전주대비 하락 마감함.
- **전망:** 차주 중국증시는 11월 수출입지표 및 물가지표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 당국의 통화정책 기초에는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속에 증시 전반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전망됨. 여기에 헝다그룹이 중국 정부 당국에 자사의 디폴트 위기와 관련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등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디폴트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하락세 전망을 지지함. 또한 중국 정부 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고자 국가반독점국을 출범했다는 소식 또한 중국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 전망됨.

신흥국가별 지수 주간수익률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중국 상해종합지수 업종별 주간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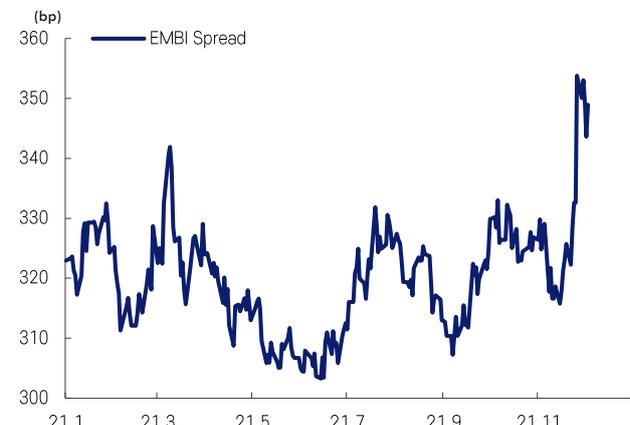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아시아(일본 제외) 및 한국 12M Fwd PER 추이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EMBI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의 가속화 전망은 변하지 않을 듯

글로벌 및 국내 경제 Review & Preview (11.29 ~ 12.10)

오미크론 변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가속화 우려는 변동성 확대 요인

-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된 정보가 제한적인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의 강한 전염성과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 가능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심리는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 다만,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 자체가 낮은 데다가, 기존 백신 효과와 관련하여 부스터샷(추가접종)이 다양한 변이에 교차 보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지나친 우려는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음. 향후 2주일 뒤 남아공 연구팀의 감염력, 치사율, 백신효과 등에 관련된 연구가 발표되기까지 이전까지는 오미크론 변이 발생 불확실성이 투자심리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임.
- 12월 미 FOMC회의(14~15일)를 앞두고 파월 연준의장은 미 의회 증언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 경제에 위협을 가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을 증대했다는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Transitory Inflation(일시적 인플레이션) 전망을 폐기하고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응이 필요함을 언급함. 또한, 11월 회의에서 발표한 테이퍼링을 아마도 몇 달 더 빨리(perhaps a few months sooner)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때때적인 스탠스를 강조한 점도 위험자산 선호심리 약화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함.
- **지난 3일 미 노동부에서 발표한 11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은 예상치(55만명)와 전월치(54.6만명)를 공히 하회한 21만명 증가에 그치는 등 부진한 실적을 기록함.** 올해 들어 비농업 신규고용이 월평균 55.5만명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직전 2개월 신규고용이 8.2만명 증가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대보다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함. 업종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은 최근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 여파에 타격을 받았던 서비스업 고용 중 레저 및 접객업, 교육 및 헬스케어, 소매업 등이 여전히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된 점이 11월 고용지표의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됨.
- **이러한 미국 고용시장의 양적인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12월 FOMC회의에서 테이퍼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 우선, 동월 실업률이 지난 10월 4.6%에서 4.2%로 크게 낮아진 가운데, 광의의 실업률(규직 단념자와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이 8.3%에서 7.8%로 하락한 가운데 경제활동참가율이 61.6%에서 61.8%로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고용시장의 회복 속도를 지켜봐야 하겠으나, 기업들의 강한 노동력 수요가 확인되고 있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등을 고려하면 11월 고용지표의 예상 밖 부진이 연준의 테이퍼링 가속화 계획에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는 판단임.
- 연건전망 자료를 통해 언급한 바 있듯이,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있는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현재는 오미크론 변이 및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판단함. 특히, 12월 FOMC회의를 앞두고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중국의 11월 생산자물가가 지난 10월의 13.5%에서 12.1%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은 긍정적이나,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가 지난 10월의 6.2%에서 상승한 6.7%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은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함. 아직까지 공급망 병목현상과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 구인난 등의 여파가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의 정점을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화 등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밖에 없음. 미 연준의 때때적인 스탠스와 오미크론 변이 불확실성 등에 가려져 있는 이슈이긴 하나, 최근 해상운임 가격지수의 하락, 동남아시아 지역의 제조업 경기와 산업생산 회복세, ISM제조업지수 내 공급자배송시간 지수 하락 등 공급망 병목현상이 일부 완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관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변수라고 판단함.

미국을 포함 주요국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지수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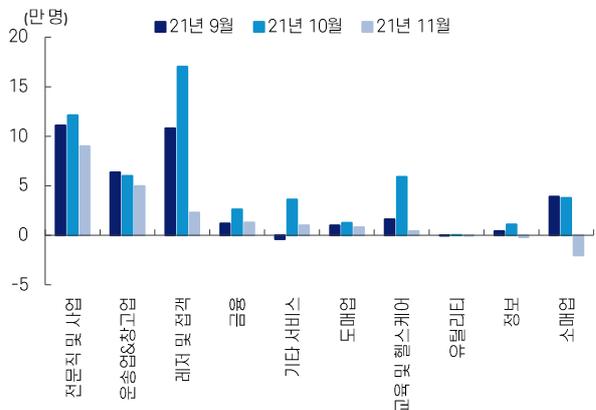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미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3개월, 6개월, 12개월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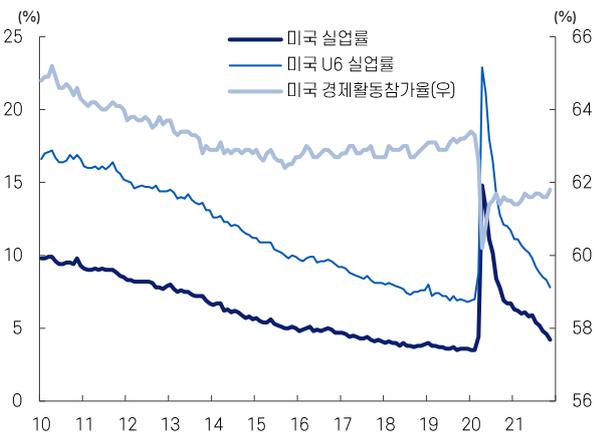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미 서비스업 고용 3개월간 증가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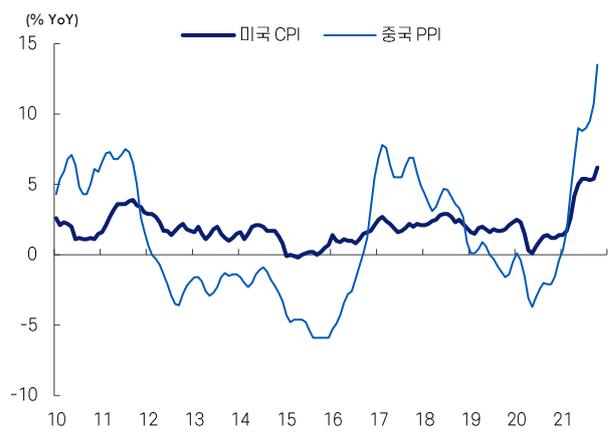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미 실업률, U6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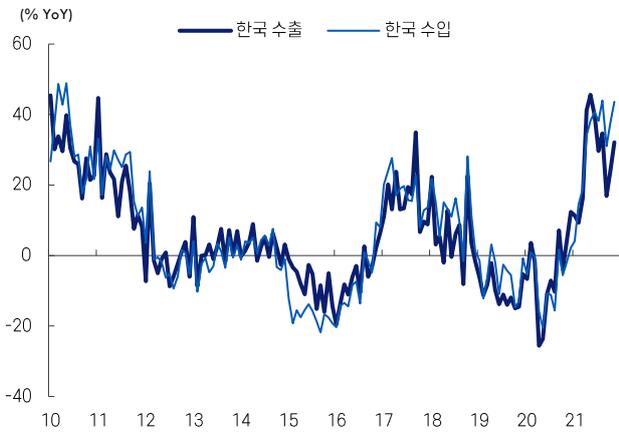
미국 CPI와 중국 PPI 상승률 추이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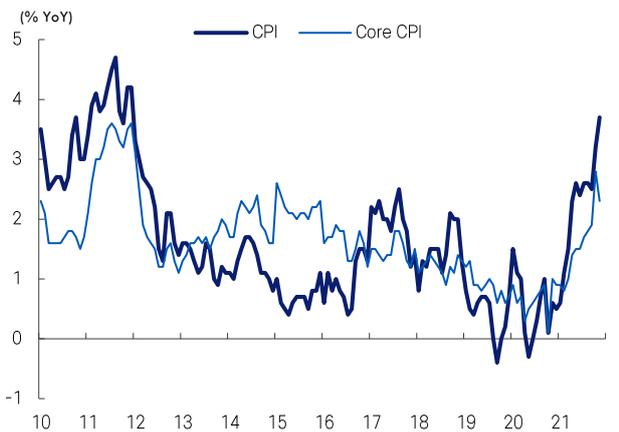
경제 지표

한국 11월 수출 (발표일: 21.12.01)



- 발표치/예상치/이전치 (% YoY): 32.1/27.2/24.1
- 11월 수입의 경우 예상치(39.6%)를 상회하며 전월대비 증가폭 확대(37.7%→43.6%, yoy)
- 또한 월간 수출 규모가 사상 최초 600억 달러를 돌파함. 일평균 수출액 또한 전년대비 26.6% 증가한 25.19억 달러 기록함.
- 세부적으로는 바이오헬스와 차부품을 제외한 반도체(40.1%), 석유화학(63.0%), 일반기계(47.4%), 자동차(41.2%) 등 전업종에서 전년대비 증가함.
- 중국(27.1%), 미국(22.0%), EU(18.9%), 일본(33.1%) 등 모든 주요 지역에서도 전년대비 수출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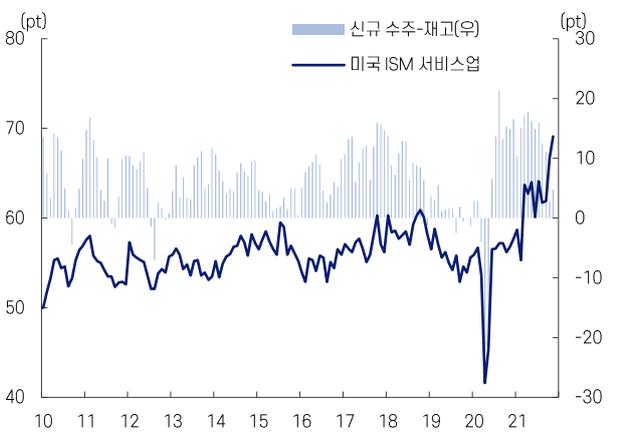
한국 11월 CPI (발표일: 21.12.02)



- 발표치/예상치/이전치 (% YoY): 3.7/3.1/3.2
- 전월대비 기준으로는 예상치(-0.2%)를 상회하며 전월대비 상승폭 확대(0.1%→0.4%, mom).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Core CPI 또한 예상치(2.2%)를 상회하며 전년대비 증가(2.8%→2.3%, yoy)
- 통계청에 따르면, 이는 1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세라고 설명함. 주로 농축산물(7.6%) 및 공업제품(5.5%) 부문에서 전년대비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며, 12월에도 상승폭이 둔화될 가능성은 적다고 예상함.
- 반면 흉남기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세 진정, 유류세 인하 효과 등에 힘입어 12월 물가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미국 11월 ISM 서비스업 (발표일: 21.12.03)



- 발표치/예상치/이전치 (pt): 69.1/65.0/66.7
- 이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세부 항목 상으로는 기업활동(69.8→74.6), 고용(51.6→56.5) 등이 전월대비 상승함. 한편 신규 수주(69.7), 공급업체 배송시간(75.7)은 전월대비 동일한 반면, 가격(82.9→82.3)은 전월대비 하락함.
- ISM에 따르면, 18개 모든 서비스 섹터에서 성장이 관측되었으며, 설비 제약, 구인난, 물류 대란 등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 공급이 차질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고 있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야기되고 있다고 분석함.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주간 경제지표 발표일정 (현지시간 기준)

	지표	단위	예상치*	발표치	이전치
29일(월)	미국, 10월 미결주택매매	% MoM	0.8	7.5	-2.4
	미국, 10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pt	17.0	11.8	14.6
	유로존, 11월 소비자신뢰지수 (확정)	pt	-	-6.8	-4.8
	유로존, 10월 소매판매	% MoM/% YoY	1.0/1.1	1.1/0.9	2.8/-0.5
30일(월)	미국, 9월 FHFA 주택가격지수	% MoM	1.2	0.9	1.0
	미국, 9월 CS 주택가격지수	% MoM/% YoY	1.25/19.3	0.96/19.05	1.16/19.65
	미국, 11월 시카고 PMI	pt	67.0	61.8	68.4
	유로존, 11월 CPI	% YoY/% MoM	4.5/0.1	4.9/0.5	4.1/0.8
	중국, 11월 제조업 PMI	pt	49.7	50.1	49.2
	중국, 11월 서비스업 PMI	pt	51.5	52.3	52.4
	일본, 10월 실업률	%	2.8	2.7	2.8
	일본, 10월 산업생산 (잠정)	% MoM	1.8	1.1	-5.4
12/1(수)	미국, 베이지북 공개				
	미국, 11월 ADP 민간고용	만 명	52.5	53.4	57.0
	미국, 11월 Markit 제조업 PMI (확정)	pt	59.1	58.3	58.4
	미국, 11월 ISM 제조업 지수	pt	61.2	61.1	60.8
	유로존, 11월 Markit 제조업 PMI (확정)	pt	58.6	58.4	58.3
	중국, 11월 차이신 제조업 PMI	pt	50.6	49.9	50.6
	한국, 11월 수출입	% YoY/% YoY	27.2/39.6	32.1/43.6	24.1/37.7
2일(목)	유로존, 10월 PPI	% YoY/% MoM	19.0/3.8	21.9/5.4	16.0/2.7
	유로존, 10월 실업률	%	7.3	7.3-	7.4
	일본, 10월 소비자가치대지수	pt	40.3	39.2	39.2
	한국, 3Q GDP	% QoQ/% YoY	0.3/4.0	0.3/4.0	0.8/6.0
	한국, 11월 CPI	% YoY/% MoM	3.1/-0.2	3.7/0.4	3.2/0.1
3일(금)	미국, 11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만 명	55.0	21.0	54.6
	미국, 11월 실업률/광의의 실업률	%/%	4.5/-	4.2/7.8	4.6/8.3
	미국, 11월 시간당 평균임금	% MoM/% YoY	0.4/5.0	0.3/4.8	0.4/4.8
	미국, 11월 경제활동참가율	%	61.7	61.8	61.6
	미국, 11월 Markit 서비스업 PMI (확정)	pt	57.0	58.0	58.7
	미국, 11월 ISM 서비스업 지수	pt	65.0	69.1	66.7
	미국, 10월 제조업수주	% MoM	0.5	1.0	0.2
	미국, 10월 내구재주문 (확정)	% MoM	-0.5	-0.4	-0.3
	유로존, 10월 Markit 서비스업 PMI (확정)	pt	56.6	55.9	54.6
	유로존, 10월 소매판매	% MoM/% YoY	0.3/1.4	0.2/1.4	-0.4/2.6
	중국, 11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pt	53.0	52.1	53.8
	한국, 11월 외환보유고	10억 달러	-	463.91	469.21
	7일(화)	미국, 10월 무역수지	10억 달러	-66.9	-
유로존, 3Q GDP (확정)		% QoQ	2.2	-	2.2
중국, 11월 수출입		% YoY/% YoY	18.0/21.6	-/-	27.1/20.6
중국, 11월 외환보유고		10억 달러	3,207.6	-	3,217.61
8일(수)	미국, 10월 구인 및 이직 보고서				
	미국, 11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pt	-	-	98.2
	일본, 3Q GDP (확정)	% QoQ/% YoY	-0.8/-1.1	-/-	0.5/1.9
9일(목)	중국, 11월 CPI	% YoY	2.5	-	1.5
	중국, 11월 PPI	% YoY	12.1	-	13.5
	중국, 11월 M2	% YoY	8.6	-	8.7
10일(금)	미국, 11월 CPI	% YoY/% MoM	6.7/0.7	-/-	6.2/0.9
	미국, 11월 Core CPI	% YoY/% MoM	4.9/0.5	-/-	4.6/0.6
	미국, 12월 미시간대 소비심리 (잠정)	pt	68.0	-	66.8
	일본, 11월 PPI	% YoY/% MoM	8.4/0.3	-/-	8.0/1.2

■ 발표 예정

*예정치는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